

금주의 칼럼

효과적인 의사소통(12)

12. 침묵과 기도, 성령의 소통

나는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있나요?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나는 말로 간섭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말보다 마음이 앞설 때, 잠잠함을 선택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나요?

나는 말로 누군가를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나요?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소통임을 믿고 실천하고 있나요?

나는 영혼 깊은 곳의 소통을 하나님께 배우고 있나요?

말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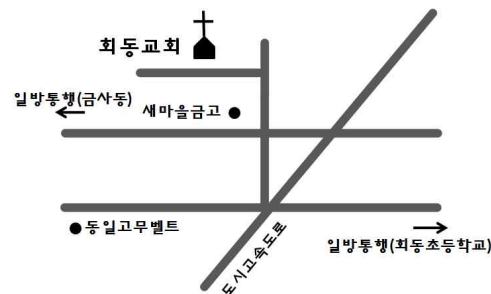
나는 오늘, 성령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고 있나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롱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 선교부)
- 충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 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 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17문 (시편 29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79장
기 도	최진수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3:1-8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니고데모의 고민
찬송*봉헌	312장 / 봉헌
봉 헌 기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5 . 31 / 제 48-22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 배영조목사

작은십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292장 / 270장

기 도: 김장우 집사 (다음: 김종섭 집사)

성 경: 시편 65: 8-13

특 송: 8구역 (다음: 9구역)

말 씀: 하나님의 은택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5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정수(온천) 오세영(재송)
안 내 / 식 당	김삼례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3일) 2주(10일) 3주(17일) 4주(24일) 5주(31일)
기 도	1,2구역 3,4구역 5,6 구역 7,8구역 9,10구역
주 일예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주 일오후	김삼예 박상태 현신 박영수 김장우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6월안내: 안내: 강형순 차랑오후: 박영수(온천) 김수안(재송)
- 2 구역장모임: 오늘 점심 후 1시 5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3층 교육관
- 3 구역모임: 5월 구역모임 구역별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 4 생명의 양식란: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숙독바람
- 5 야외행사: 이번 주 수요일(6월3일)에 전교인 야외행사가 있습니다.
장소: 황산공원(지난번에 간 장소) 출발시간: 교회에서 10시
준비물: 개인 및 구역별 준비- 점심과 밀반찬
교회: 고기반찬* 회무침 및 양념
교통편: 교회 차랑 및 개인차랑 동원

* 참석하실 분은 참석자 명단에 성함을 기록(식사 및 교통편 위해)

- 6 행사 안내: 1) 제직회: 6월 첫째 주
2) 교사강습회: 6월 22일부터 장소: 온천제일교회당
- 3) 6월 3일 : 지방선거일 투표일
- 7 선교소식: 1) 차모세 선교사 부부: 6월 10일경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심
- 8 교우소식: 1) 배영광 집사: 허리 시술 받으심

전도팀: 전도팀 전도는 한 달에 두 번 나갑니다. 1교구, 2교구

기도제목

- 1 가정의달: 가정(부모, 자녀)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 2 야외행사: 6월 3일 교회 야외 행사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도록
- 3 교우들: 질병, 지병,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교우들을 위해

5 월 행사 안내

* 어린이주일: 5월 3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5월 셋째주일
* 어버이주일: 5월 10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어버이 선물: 70세 이상	1교구/ 2교구
* 선교헌산: 셋째주일	* 가정의달: 5월달
* 총회 목장세미나: 5월11-14 용인제일교회당	* 교사주일: 5월달
* 경배와 찬양: 5월 둘째주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 5월 모임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김복덕 김은수*김은숙 김중렬*박광자 박위순
백운자 오정수*최은경 이성희*강승경
이성희(여) 최문성*장지원 무명
- ◆**감 사:** 김은수*김은숙 김중렬*박광자 백운자 무명2
- ◆**선 교:** 김중렬*박광자 이성희*강승경 김장우*전만주
김복덕(2) 이말연 백운자
- ◆**건 축:** 오정수*최은경(12) 이말연 이성희*강승경 김복덕(2)
김중렬*박광자 김장우*전만주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5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3000	1812	박영수
2	강형순	3		20000	4750	교 회
3	이은심	4		10000	4080	교 회
4	백운자	5		23000	6835	교 회
5	김경애	4		20000	3305	교 회
2교구						
6	이봉순	3		19000	1412	교 회
7	박광자	5			2470	김중렬
8	이현정	4		35000	7467	교 회
9	전만주	4		21000	3997	교 회
10	김종섭	5		10000	920	교 회

생명의 양식

05-5 잔소리와 관심의 차이 막 3장 13-15절

관심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곁에는 늘 부모가 있다는 존재감과 부모가 함께해서 늘 돕고 있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관심이란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험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기쁨에, 그리고 자녀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둘째,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식적으로 자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육체로는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전달을 위해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돕기를 원하지만

도움을 주는 기술의 부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만듭니다.

기독교의 2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말씀은 설교하는 것이지만, 성육신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사람을 진정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대화는 자녀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제치고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대리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